

부천시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시. 동쪽은 서울특별시·광명시,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쪽은 시흥시, 북쪽은 서울특별시와 접한다. 면적은 53.46km², 인구는 86만9,944명(2010년 1월 현재)이다.

:: 서 도사의 횡포

집안은 망하고 후손은 불행해지고



현재의 솔안말 전경

조선조 부평도호부 석천면 구지리(소사구 송내동이었다가 원미구 상동에 편입)는 솔안말을 포함하는 마을이었다. 송내동은 솔안말의 한자어이다. 이 마을에 이천(利川)을 본관으로 하는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서씨는 본인이 직접 벼슬을 한 사람은 아니었으

나 그의 조부가 지방 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시(科試) 일을 맡아보던 종5품 도사(都事)를 지냈기 때문에 그도 이를 계승하여 마을에서 도사라고 불렸다. 그는 지역토호에다 성품이 포악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다 인근 전답은 거의가 그의 소유였다고 한다. 그는 소작인들을 못살게 구는가 하면, 거기에도 심술도 대단하여 이웃집 소가 자기네 콩밭에 들어가면 그 소를 죽이고도 소 값을 물어주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남루한 과객이 찾아들었다. 그는 서 도사의 집에 가서 구걸을 하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그러나 서 도사는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하인을 시켜 곤장을 치게 했다. 그런데 곤장 몇 대에 그만 과객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인들은 매장을 하기위해

시신을 수습하려다 죽은 이의 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서 도사에게 가져갔다. 서 도사는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인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져나갔다. “서 도사가 사람을 죽였대”, “죽은 사람이 암행어사란다” 등등 소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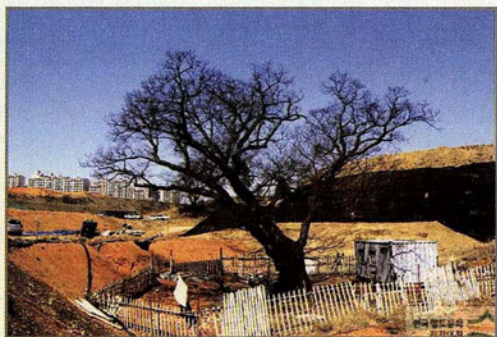
서 도사는 두려웠다. 그는 생각다 못해 강화도에 사는 작은마누라 집을 전전하면서 피해 다녔다. 관아에서는 포졸을 풀어 그의 행방을 뒤쫓았다. 그러던 중 서 도사는 강화도 초지진에서 피살된 채로 발견되었다.

그토록 심술 많고 욕심쟁이인 서 도사가 객지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집안은 망하기 시작하였다. 하인들은 서 도사가 살아서 부린 횡포에 대한 보복으로 서 도사의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결국 굶어 죽게 했다고 한다. 또 서 도사의 후손 중에 두 사람씩이나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켜 불행하게 살다 죽었다고 하며, 결국 그의 손(孫)도 끊겨 버렸다고 전한다. 결국 악한 자는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하겠다.

∴ 범박골의 배뭇탱이

홍수 때 사람 살린 느티나무

소사구 범박동에는 마을 명칭에 대한 유래가 전해 내려온다. 범박골 또는 범박골이라 불리는 마을 입구 동구 밖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자란다. 노목답지 않게 지금도 싱싱한 푸른 잎이 무성하게 피어 마을 사람들의 한여름 더위를 식혀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나이를



범박동 느티나무

대략 5,600년은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다.

옛날 어느 해에 태풍이 오고 큰 비가 내려 근처 일대 평야가 물에 잠겼다고 한다. 이 일대에 살던 주민들은 물에 갇혀 고립되고 말았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떠나려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 등 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사람들 중

몇몇은 살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높은 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배는 산과 산 사이의 협곡을 따라갔다. 얼마 후 산들이 감싼 듯한 아늑한 분지가 나타났다. 모질게 몰아치던 폭풍도 뜸해졌다. 한쪽 길옆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보였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 뗏목을 대고 물으로 올라갔다.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중이었다. 사람들은 폭풍우와 홍수 속에서 빠져 나온 것에 만족하며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 후 이 나무의 이름은 ‘배를 맨 나무’라는 뜻에서 배뭇탱이라고 하였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 범박골에 사람이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